

제 110 호

주의 공현 대축일

1975. 1. 5.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충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신년사□



새해에 부쳐

김종택 신부

1974년을 보내며 1975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매우 큼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의 느낌이 대개 그렇습니다만 1974년을 보내는 감상이 유별나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우리는 1974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던 때도 일찌기 없었고, 무언가 뿌듯한 가슴 설렘으로 크리스찬의 자부심을 느꼈던 때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기만을 생각하던 정치지도자들, 닉슨 다나카·셀라시에 등이 부끄럽게 자리를 물러났고, 기쁨이 온통 전세계의 슬픔을 막아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내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던 주교, 목사 교수, 변호사,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죄목을 뒤집어쓰고 옥중에서 고생을 하는가하면, 대통령에 대한 저격, 땅굴 사건, 부정대출, 보석밀수,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소리를 대변한 신문에 대한 광고탄압등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억눌린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슬픔이 막힌 언론자유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울했던 지난해를 거울삼아 새해의 마음가짐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화해의 성년인 1975년이기에 우리의 자세 또한 더욱 새로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먼저 자신에 대한 각성(覺醒)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쇄신(刷新)이 있어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성하십시오. 크리스찬인 우리가 오히려 다른이들보다 더욱 부정과 부패에 영합했던 일은 없었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보고도, 종교인은 현실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때문에, 입을 다문 적은 없었습니까? 억눌리고, 헐벗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세신하십시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안에서 새로 나는 새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모든이를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답게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주위에 평화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밀알은 썩어야 새생명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본지 발행인)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임당송** 보라, 임금이신 주께서 오시니,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그 수중에 있도다.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60: 1-6)

하느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났다.

□**창세송**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드리리이다.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제 2독서** (에제소 3: 2-3, 5-6 성서 P 440)

이방인들도 약속된 바를 함께 받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동에서 그의 별을 보고 조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 1-12 성서 P 2)

동쪽 나라에서 임금님은 조배하러 왔노라.

□신자들의 기도

1. 삼왕에게 조배를 받으신 주여, 당신은 참된빛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그 빛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 빛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정의와 평화를 원하시는 주여, 부정과 불의속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복으로 치솟는 백성들의 소리를 굽어보시어 은총을 내리주소서 당신의 사랑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

3. 우리의 일상생활을 항상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여, 찬란한 새해를 맞이하는 자신과 사회와 가정에 복을 주시어 당신의 보호아래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

4. 부활의 기쁨을 보여주신 주여,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위령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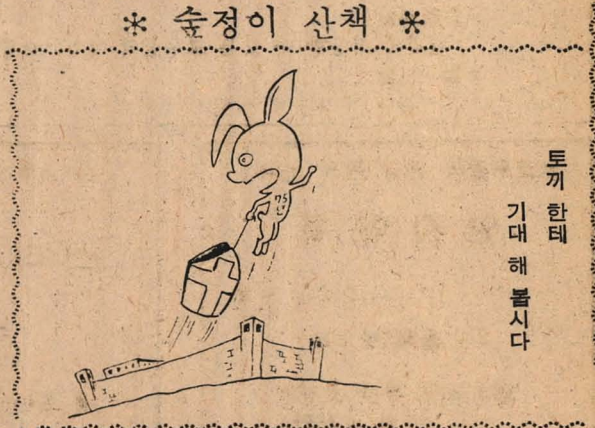
+ 주여, 믿는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이 조찰한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의 필요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소서.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동쪽에서 주의 별을 보았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리러 왔나이다.

* 순정이 산책 *



토끼한테
기대해봅시다

성 명 서

우리는 최근 언론에 대한 당국과, 또는 경영주에 대한 당국의 압력이 한국의 자유언론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 이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자유언론의 요체는 기자의 자율성과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 있다.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자들의 노조결성과 그에 가입은 당국과 그에 얽매인 경영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치고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대하여 당국과 그에 사주(使贖)받은 경영주는 이들 노조 중심 잔류들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해임조치까지 서슴치 않음은 자유언론의 기초인 기자의 신분보장을 근거로부터 위협하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를 극히 중요시 하는 바이며, 이와같은 처사가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한다.

2. 조선일보의 기자들의 양심적인 건의와 자유언론 실천을 위한 노력을 위계 질서문란과 편집국장의 편집권 침해라는 이유로 2명의 기자를 해임했다. 이는 그 처분에 양심적인 기자를 축출하려는 당국 및 그에 추종하는 언론기관 경영주에 의한 폭력으로 간주치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언론탄압의 풍토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동아일보는 자유언론의 실천과 그 발양을 위해 노력한 26명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기자들을 대량으로 감봉, 경고, 견책 처분으로써 동아일보를 향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같은 사태가 오로지 언론기관 경영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빚어진 것이라고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국민들의 동조와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 가. 자유언론의 창달에 역행하는 신문 또는 방송에 대하여 우리는 그 구독과 청취를 기피하거나 나아가서는 거부할 것이다.
- 나. 부당한 압력과 보복을 행하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기자들과 그 권익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다. 동아일보의 광고해약은 분명히 당국의 압력이 기업주 즉 광고주에 가해져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은 압력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언론정책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사례를 좌시한다면, 동아일보는 물론 다른 언론기관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해질 압력으로 언론 본연의 사실보도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아울러 당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광고계제를 의식적으로 또는 강압에 못이겨 회피 또는 기피하는 기업체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라.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특수언론을 지원하는 뜻에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구독운동을 벌일것도 확인하고 이에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1974년 12월 27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신년 특별 편집 계획 ◆

1972년 12월 3일 전주 시내 합동 주보로 출발한 <순정이>가, 1973년 12월 23일(제56호)부터는 제1지구가 참가하여 점차 교구주보의 성격을 띄는가 싶더니만, 드디어 1974년 11월 10일(102호)부터 명실공히 교구주보로 발전하였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보살피심이라 믿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주교구 31개 본당 가운데 27개 본당이 참여하여 8,500부라는 놀라운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지라, 신년부터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봉사하고자 몇가지 조그마한 편집계획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더욱 아껴주시고 채택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

구약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을 일깨워 주었던 예언자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순교복자들의 발자취

순정이에서 순교하신 일품분 복자들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리교실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우들의 지침, 답답했던 문제점들을 풀어 드리는 안내자.

*탐 방

각 본당 및 교구내 제단체 탐방

인생상담

여러분의 고민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 봅니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테(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교활 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 범 수(바오로)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④ 6094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전화 ④ 5013

김원준(야고버)

□양지쪽□



새 해 새 설계

김 스테파노 신부

새 희망에 벽찬 1975년 새아침의 햇살이 힘차게 밝아왔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못난 사람에게도,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금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새해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새해 새 설계를 하기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새로 받은 1975년 이 분명히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해를 사용하는데 소유권이 결코 나에게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노력없이 받은 1975년이 귀중한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값지게 살아야 하겠다. 만일 하느님의 뜻대로 이 값진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책임 추궁을 당할 때가 오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해 새 설계를 해야 옳단 말인가? 하느님께서 새해동안 주실 은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새해 설계라면 만결이다.

한꺼번에 우물 여러개를 파면 하나도 깊이 팔 수 없는 법이니, 하나만을 열심히 파기로 하자.

먼저 벽에 달려있는 새 달력을 떼어 책상위에 놓는다. 다음에는 고백 성사 받을 날짜를 고른다. 일년에 한번만 해서는 안된다. 한달에 적어도 한번은 하도록 하루를 고른다. 한달에 두날을 고르면 더욱 좋다.

자, 고백 성사 날짜를 골랐으면, 그 날짜위에 빨강 연필로 동그라미를 달력에 그린 다음에는 2월에, 그 다음에는 3월에..... 이렇게 12월까지 열두개를 그린다.

이제는 다 되었다. 달력을 다시 벽에 건다. 고백 성사 보는 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자 굳게 결심해야 하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와같은 미천한 자에게도 새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 당신이 주신 은총을 다 받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오니,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주소서.

금년에는 당신앞에 부끄러움 없는 값진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두손을 합창했나이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심이 (76) 김병오



□시간안내□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씨 1,200원
마더테레사
멜킵 마그렛츠 400원

◆ 이주간의 성경 ◆

- | | |
|--|---|
| 6(월) 독서 (요한 1서 3:22-4:6. 성서 p 547)
복음 (마태오 4:12-17 23-25 성서 p. 6) | 9(목) 독서 (요한1서 4:19-5:4. 성서 p 549)
복음 (루 까 4:14-22 성서 p. 132) |
| 7(화) 성 라이문도 23일
독서 (요한 1서 4:7-10 성서 p 548)
복음 (마르코 6:33-44 성서 p. 89) | 10(금) 독서 (요한 1서 5:5-6. 8-13 성서 p 549)
복음 (루 까 5:12-16 성서 p. 135) |
| 8(수) 독서 (요한1서 4:11-18 성서 p 548)
복음 (마르코 6:45-52 성서 p 90) | 11(토) 독서 (요한 1서 5:14-21 성서 p 550)
복음 (요 한 3:22-30 성서 p. 208) |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동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지 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6289



1. 교육부장 회의 결과보고

- ① 교리 경시대회: 각 분당에서. 2월 23일
- ② 중·고등학생 지도자 목상회: 각 분당 회장 부회장: 1월 13일
- ③ 이대권 신부님 자당의 기일: 1월 8일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 ④ <숲정리> 분당 공지사항은 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⑤ 중·고등학생 치명탈 원고 제출 요망
- ⑥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새해를 보다 계획있게 준비 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공동체 목상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 2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참가범위: 성직자, 수도자, 일반평신도, 참가비: 2,000원(숙박비) 기타경비는 센터에서 충당하겠음
때: 1975년 1월 9일-11일 11일까지 (2박3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제 3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안내 참가범위: 가톨릭 중고등 학생, 참가비: 1500원. 기타경비는 전주 교구 학생연합회에서 충당. 때: 1975년 1월 13일 오후 2시-15일 5시까지, 접수마감: 1월 12일 5시까지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영
사도 회장 김영진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고문, 임원, 구역장 전원 참석 요망
- 2. 성심 부녀회할 연기: 1월 13로 (1월 10일 중고생 졸업관례로)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2. 판공성사 안 보신분 속히 보시길
-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지난주 성미 2달 4되 누계 334.4되 성탄 헌금 35,18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원
사도 회장 조해형

- 1. 성안또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시상식 있음
-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임
- 3. 예비신자 1월 한달간 방학: 2월 2일 개강
- 4.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준비: 부모님의 협조 요망 학생 전원 10시 미사후 모여주시기 바람
-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2가 이 엘리사벳: 2,000, 남노 최 아오스당: 1,000
 중노2가 김 막달레나: 2,000, 인후 이 유리: 1,000
 주계 6,000원, 누계: 1,889,152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미사후
- 2. 아동 교리반 방학(1월 4일부터)으로 저녁미사는 7시에 있음
- 3. 상관 공소 회합일
 1월 7일 (신흥리) 1월 8일 (내정리) 9일 (서당리)
 축결혼 (1월 9일)
 유준웅(요한)군, 윤덕남(세노비아)양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 1. 병자 판공성사 사무실 연락
- 2. 아동교리 방학: 1월 4일~2월 15일까지
- 3. 팔복동 공업단지 미사: 1월 5일 15시
- 4. 1월중 공소 미사 없음
- 5. 미사변경(평일) 오후 7시, (금) 14시(어머니미사), (토) 오후 7시, (주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림
사도 회장 이영재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2. 유아세례: 공식 미사후
- 3. 예비자 안내
 주임 신부반: 주일밤 8시, 보좌신부반: 수요일 7시반
 장수녀반: 주일 낮 11시, 범 부제반: 주일 낮 11시
- 4. 제7차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공고
 1월 14일 밤 7시, 전동성당에서(경품 추첨 및 참석자 기념품 증정)
- 5. 판공성사 아직 받지 못하신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당	소식	봉헌금	지구	분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 창제안인 배인정	사도회 정기 총회 성모회 월례회 사도회 안나회	14,070원	제 3 지구	창인 등 황 등	사도회 상임 임원 회의 축 헌금 감사합니다	25,892원
			2,470원				41,151원 21,590원 7,830원 15,835원 13,900원 49,308원
제 2 지구	대 윤명 문 동	구역장 및 반 회장 회합 사도회 동계 어린이 강습회 사도회	2,165원 34,190원 21,710원 12,825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노 송 동 덕 진 동 서 학 동 전 동	사도회 성 안 또 니 오 재 속 형 제 회 병 자 성 사 연 락 요 망 사 도 회 사 도 회 제 7 차 신 용 조 합 정 기 총 회 공 고	8,030원 1,630원
			3,145원 9,416원 14,640원				제 5 지구